



2022년 5월 22일(제1089호) 부활 제6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군종교구에서 활동하며 만나게 되는 많은 군 신자 여러분께서는 직업적 특성상(?) 약속, 특히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미사 시작 20분 전 착석은 말할 것도 없고 미리 이야기된 것들은 대부분 이행하곤 합니다.

약속(約束)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것이나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고 정의하며, ‘뭍을 약(約)’과 ‘뭍을 속(束)’ 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비록 제가 한자에 능통한 세대가 아닙니다만, ‘약속’이란 단어는 특정 대상과 지켜야 할 것을 꼭 묶어 지키게끔 한다는 의미를 지닌 듯합니다.

‘약속’은 물건, 토지 계약과 같이 타자와 미리 정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만 의미가 실현됩니다. 대상과 약속으로 묶인 관계성과 신의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험겁게 매어진 끈의 매듭처럼 풀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하느님과 약속인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조들이 받게 된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해주신 가장 큰 계명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 37-38) 등이 그것입니다.

## “계명”

계속해서 부활 시기 주일 동안 요한 복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곁에 둔 시선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어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공생활 중 여러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신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임을 확인하시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성부의 사랑을 받을 것임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킨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약속을 한 대상과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삶에서 맺게 되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과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활 시기 보낼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김동강(크리스토폴) 신부  
충장(제31보병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15,1-2.22-29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묵시 21,10-14.22-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4,23-29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스무 번째 시한

서울에 도착하여 우리는 포도청에 갇혔습니다. 포청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판관들 앞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더러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यो. 중국에서 자랐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하도록 중국어 통역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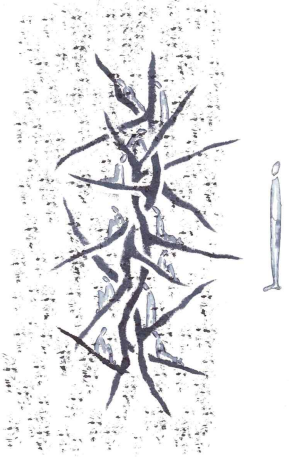
1839년의 박해 중에 그 배반자가 세 명의 조선 소년이 서양말을 배우기 위해 마카오에 보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신분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붙잡힌 교우 중 한 사람이 제가 이 나라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고해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세 소년 중 한 사람인 김 안드레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 꺾어야 하였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판관들은 구경꾼들과 함께 “가없는 젊은이!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군!”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제게 배교를 명하였습니다. 저는 “임금 위에 천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을 공경하도록 명하시므로 그분을 배반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 정당화시킬 수 없는 범죄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교우들을 고발하라는 독촉에 저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의무와 천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주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는 그들에게 천주의 존재와 그 단일성, 창조와 영혼의 불멸함과 지옥, 창조주를 흠송할 필요와 이교의 허위함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판관들은 “당신의 종교가 좋소. 그렇지만 우리 종교도 좋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거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렇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를 조용히 내버려 두고 우리와 평온하게 살도록 해야 하오. 그러나 그렇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최악의 죄인들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소 있소. 여러분은 우리 종교가 좋고 참되다고 자백하면서 그 종교를 사교(邪教)로 괴롭히고 있으니 여러분 자신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요.” 그들은 제게 대한 대답으로 바보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평화가 그대와

어둠을 벗어	그대 안에
던지고.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시관은	
그만.	"평화가 그대와 함께!"

# 성화이야기

## 일피와 오메가의 예수님



키타콤(로마, 콤모디아 위치)  
직지미상 / 4세기경 제작

카타콤은 초기 교회 당시 박해를 피해 지하에  
흡사 도시를 방불케 하는 공간을 제작했는데, 이  
곳에서 미사와 기도는 물론 교인들의 무덤까지도  
만들었다. 카타콤에는 초기 교회 예술의 발전을  
알 수 있는 회화들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본 작  
품은 오늘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알파와 오메  
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보라, 내기 곧 김다. 나의 상도 가져가시 각  
사람에게 지기 행실대로 갚아 주겠다.

나는 일피이며 오메기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김은혜(엘리사벳)



로마, 도미티아 키타콤



로마, 칼릭투스 키타콤

### 교 구 소 식

군중우익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비룡 농진우 신부

#### ◆ 교구장 동정

- 비룡(제25사단) 성당 성전 축성식 및 사목방문  
    때: 5월 22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5월 2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 「기독교 신지 엠」 이름 공모 인내

- 공모기간: 2022년 5월 15일(일) ~ 6월 5일(일)
  - 참가방법: 굿뉴스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
  - 선정인원: 1명
  - 상금: 30만원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